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이 개인의 사고 능력으로 부터 점차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다(김명철, 민경환, 2012; 최인수, 1998;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Kaufman, 2009; Simonton, 2009; Sternberg & Lubart, 1996). 1950년 Guilford가 APA 연설에서 창의성 연구를 강조한 이후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의성의 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으로 구성하는 등 주로 개인의 확산적 사고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지속해왔다(Eysenck, 1993; Guilford, 1967; Torrance, 1974).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심리측정적 접근 방법은 준거 타당도의 부족(김영록, 이순목, 2004), 예언 타당도 확보의 문제(Kaufman, 2009), 확산적 사고 검사의 안정성 부족(이신동, 2003)등,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명철, 민경환, 2012). 특히 서양에서 개발된 창의성 측정도구들을 서양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실시했을 때, 그 연구결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Niu & Sternberg, 2002; Rudowicz, 2003).

이러한 창의성의 심리측정접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이 발현되는 맥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으며,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어져 왔다(최인수, 1998; Csikszentmihalyi, 1996; Kaufman, 2009; Lubart, 2010; Plucker, Beghetto & Dow, 2004; Simonton, 2009; Sternberg & Lubart, 1996).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Rudowicz(2003)는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에서 실시된 여러 창의성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밝혔으며, Lubart(2010)는 창의성에 대한 여러 비교문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각

문화권에서 창의성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창의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이론 중 하나는 Csikszentmihalyi(1996)의 체계모형이 있다. 체계모형은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창의성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였다(최인수, 2011). 체계모형에 따르면, 창의성의 발현은 개인(individual), 분야(field), 영역(domain)이라는 세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개인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창의적인 산물을 만드는 주체이고, 이러한 개인에 의해 창조된 아이디어나 산물은 분야에 의해서 평가되고 선택된다. 분야는 한 영역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의 집단일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정당이나 분과, 그리고 소비자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선택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산물은 지식의 체계로 형성되어 하나의 영역을 이루며, 이렇게 형성된 영역들은 다시 후속 세대의 개인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6). Csikszentmihalyi(1999)는 추후 연구에서 분야가 확대되면 하나의 사회(society)를 의미할 수 있으며, 영역은 확장되어 문화(culture)를 의미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체계모형(Csikszentmihalyi, 1996)이 창의적인 개인의 특성에만 국한되었던 창의성 연구의 외연을 넓혀서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을 고려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의의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사점은 창의성의 발현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분야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사회와 문화마다 평가를 하는 분야의 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분야의 기준에 따라 창의성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최인수, 2011; 최지은, 송인섭, 2002; Csikszentmihalyi, 1988; Runco, 1990). 예를 들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처럼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미술평론가인 러스킨에 의한

긍정적 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그 창의적 작품과 그에서 비롯된 전라파엘학파(pre-Raphaelite)와 같은 미술사조는 하나의 예술적 영역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1988)가 제시한 분야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정당이나 분파, 또는 소비자 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될 수도 있다. 즉, 분야는 평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합집합의 개념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들어보면, 학생들을 평가하는 분야는 교사들이 될 것이며, 문학은 비평가와 편집자들, 문화재를 평가하는 분야는 박물관 큐레이터나 사학자들, 스포츠맨들은 에이전시 감독들, 학문적 영역에서는 여러 연구재단 등이 될 것이다(Csikszentmihalyi, 1999).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분야에서 창의성을 평가하고, 창의성을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분야를 구성하는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을 제시하고자 한다. 암묵적 이론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Sternberg, 1985), 이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성개념이다(Kelly, 1955). 또한 암묵적 이론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받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력과 함께 개인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성되고 구조화 되는 틀이다(Romo & Alfonso, 2003). 이렇게 구성된 암묵적 이론은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한 개념의 이상적인 모습, 즉, 원형(prototype)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원형은 자기와 타인의 행동, 모습, 그리고 산물 등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어 사용하게 된다(Neisser, 1979; Sternberg, 1985; Sternberg, Conway, Kerton, & Berstein, 1981). Csikszentmihalyi

(1996)와 Gardner(1993)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암묵적 이론을 사용하여 창의성을 평가한다고 제시하였으며, Sternberg(1985)와 Lim과 Plucker(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사용됨을 밝혔다.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Sternberg(1985)가 지능과 지혜,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차이를 밝힌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지능과 지혜,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지능과 지혜에 대한 개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창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 후,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Fryer & Collings, 1991)과 브라질, 쿠바(Welchsler & Martinez, 2001), 핀란드(Saarilahti, Cramond, & Sieppi, 1999), 홍콩과 중국(Hui & Rudowicz, 1997), 인도(Singh, 1987), 루마니아(Dinca, 1999), 싱가포르(Cheng, 1999) 등 여러 나라에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들을 살펴보면, Lim과 Plucker(2001)는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이 가지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네 가지 요인(성격과 일반적 창의성, 인내, 독립성과 이상성, 인지와 동기)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서양에서 나온 개념과 유사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서는 서양과 다르게 부정적 의미를 가진 특성들이 나타났으며, 또 다른 점으로는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후 연구로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 비교(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한순미, 성은현, 이정규, 2008), 복합성을 통한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최인수 외, 2011),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암묵적 이론연구(최인수, 전요한, 표정민, 2013) 등이 있었다.

앞서 제시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선행연구들은 창의성의 개념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으며, 국가 수준의 문화권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화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그 수준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류학자 중 한 명인 Geertz(1973)는 '문화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서로 나누고, 지속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전승되는 기념 체계'라고 하였다. 최근 GLOBE라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House와 Javidan(2004)은 '한 집단의 공통된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또는 세대를 통해 전해져오는 공유된 동기와 가치, 믿음, 정체성,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미 등'으로 문화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Lubart(2010)는 창의성의 비교 문화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문화를 예시로 문화의 수준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주었다. 즉, 프랑스의 문화는 유럽문화의 한 부분이며, 또한 더 크게 본다면 서양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문화는 유럽 문화와 서양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더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면 북부 프랑스와 서부 프랑스, 그리고 동부 프랑스와 같이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19세기의 프랑스 문화와 현대의 프랑스 문화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한국에서 이루어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들은 한국을 하나의 거시적 문화권으로 보고 한국인이 가진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외국과 비교하는 비교문화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성은현 외, 2007; 최인수 외, 2011;

최인수 외, 2013; 한순미 외, 2008; Lim & Plucker, 2001). 하지만 최근의 문화연구들은 점차 거시적인 국가 수준의 비교뿐만 아니라 미시적 수준(한 국가 내에서 지역, 인종, 연령 등)에서 차이를 살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국내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미시적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김성환, 2012; 최인수, 이진희, 표정민, 201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내의 하위문화 간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기준, 즉,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한국 내의 미시적 수준의 문화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위문화의 한 수준인 연령대별 차이를 통하여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활용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종종 제시되어져 왔다. Choe(2006)는 한국의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환(2012)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10대와 50대가 다를 것을 밝혔으며, 최인수 외(2013)의 연구에서도 10대에서 40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50대의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기업가를 창의적인 인물로 평가한다는 결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에서 연령대별로 창의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을 뿐, 왜 그러한 평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준, 즉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한국의 하위문화 중 하나인 연령대의 차이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자들

은 연령별 차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었다. Sternberg(1985)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연구를 통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Lubart(1999)는 창의성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최인수(2011)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같은 문화권에서도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문화구성적 창의성 이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연령대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한국인의 암묵적 이론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밝힌 후, 각 요인 별로 연령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연령별로 창의성의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면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암묵적 이론 구조를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된 척도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의 국가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 수준의 문화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의 한국 내의 하위문화별 창의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인하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공해줄 수 있기에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힌다.

## 방 법

### 문항개발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에 앞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암묵적 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으로 생성된 자신만의 이론을 의미한다.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민희, 2010).

첫 번째는 연구주제가 되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성은현 외, 2007; Choe, 2006; Sternberg, 1985), 두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Yue & Rudowicz, 2003; Yue, Bender & Cheung, 2011). 세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일반인들이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최인수 외, 2011; 하주현, 성은현, 한순미 외, 2008), 마지막으로 녹화된 사람들이나 혹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인물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Lim & Plucker, 2001; Sternberg, 1985).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가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된 첫 번째 연구방법인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총 1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 설문에 사용한 문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특성을 모두 적어 보세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수는 제한이 없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총 137부였으며, 개방형으로 나타난 응답의 총 수는 390개였다. 응답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답변을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나타난 응답은 총 59개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기 위해 10대부터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연령대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연령대의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1차 조사로 부족한 연구대상의 수는 2차 조사를 통하여 목표한 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암묵적 이론 조사는 1차적으로 2010년 9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전 연령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대학교 학생들 자신과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조사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수거된 자료들을 확인하여 연령대별로 부족한 부수들은 추가적으로 2차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수거된 부수는 401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313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사전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문항의 수는 총 59

표 1. 연구대상

	남자	여자	합계	
10대	23	56	79	
20대	31	31	62	
연령대	30대	24	30	54
	40대	22	43	65
	50대 이상	28	25	53
총 합계	128	185	313	

개였으며, 정리한 응답들을 각각 Likert 7점 척도로 하여 본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무작위로 배열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이 창의적인 사람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그 정도를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제 문항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본 척도의 실제 지시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음의 내용이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창의적 특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본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의적 특성 척도(Gough & Heilbrun, 1983)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는 방법은 대부분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기에, 그 수렴타당도를 Gough와 Heilbrun(1983)의 창의적 특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이후 CPS)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PS는 형용사 체크리스트(Adjective check list: ACL)의 문항 중 창의적 성격 특성과 관련된 3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Gough, 1979). 이 중 18개의 형용사 문항은 창의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며(indicative item), 12개의 형용사는 비창의적 성격 특성을 대표하는 문항(contra-indicative item)이다. 자신을 잘 나타내는 성향 문항에 표시를 한 후, 표시된 형용사가 창의적 성향 문항이면 1점을 부여하고 비창의적 성향 문항이면 1점을 감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18점까지 나타난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 형식(self-report)으로 개발

표 2.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문항

번호	전체 문항	번호	전체 문항
1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한다	31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2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	32	새로운 것을 만든다
3	끈기가 있다	33	민감하다
4	쾌활하다	34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5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랑한다	35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6	자신감이 높다	36	경험이 풍부하다
7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룬다	37	근검절약한다
8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38	끊임없이 노력한다
9	생각이 있으면 실천한다	39	의지가 강하다
10	따뜻한 성격이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다	40	생각이 개방적이다
11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41	친절하다
12	다른 관점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42	전문성이 뛰어나다
13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43	독창적이다
14	리더십이 뛰어나다	44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15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45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16	상상력이 풍부하다	46	앞을 내다 볼 수 있다
17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47	독특한 생각을 가진다
18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48	정직하다
19	통찰력이 있다	49	겸손하다
20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다	50	자존심이 강하다
21	호기심이 많다	51	용감하다
22	지도력이 있다	52	특출한 재능이 있다
23	도전적이다	53	성실하다
24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54	추진력이 있다
25	개성이 뚜렷하다	55	머리가 총명하다
26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	56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7	관찰력이 뛰어나다	57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
28	자신감이 넘치지만 겸손하다	58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한다
29	이야기꾼이다	59	매력이 넘친다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지목한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평정하도록 수정하였다. Domino(1970)와 Schaefer(1973)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3-.81이며 준

거관련타당도는 .68-.74 ( $p < .0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PS는 최인수와 윤지윤(2013)이 번안하여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한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창의적 특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문항

창의적 성향문항(indicative items)	비창의적 성향문항(contraindicative items)
유능한(capable)	가식적인(affected)
영리한(clever)	매사에 조심스러운(cautious)
확신에 찬(confident)	평범한(commonplace)
자화자찬의(egotistical)	보수적인(conservative)
유머감이 있는(humorous)	관습적인(conventional)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불만에 찬(dissatisfied)
격식을 차리지 않는(informal)	정직한(honest)
통찰력이 있는(insightful)	관심의 폭이 좁은(interests narrow)
지적인(intelligent)	예의바른(mannerly)
관심이 다양한(interests wide)	진실한(sincere)
발명의 재능이 있는(inventive)	순종하는(submissive)
독창적인(original)	의심이 많은(suspicious)
심사숙고하는(reflective)	
기지가 있는(resourceful)	
자신감이 넘치는(self-confident)	
매력적인(sexy)	
속물의(snobbish)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unconventional)	

주. 괄호안은 Gough의 CPS의 원문항

### 분석방법

첫 번째로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고유치 산출과 요인수효를 결정하기 위해서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M-Plus 7.0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각회전 방식인 GEOMIN 기준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나타난 요인 점수와 CPS 하위 요인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하여

암묵적 이론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연령대별 요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과 ANOVA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첫 번째로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



된 59문항의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각회전방식인 GEOMIN 회전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대부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구조를 추출하였으나, 이러한 분석 방법은 공통분(communality)을 1로 가정하여 분석하여 각 문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분산(unique variance)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순목, 2000).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암묵적 이론 구조를 조사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가지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오차를 제거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기에 공통요인분석이 적절한 요인분석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수 복

잡도가 1이상임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Yates (1987)가 제안한 GEOMIN 회전이 가장 적절한 회전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McDonald, 2005, Lee 2010 재인용).

요인분석 전의 사전 분석으로 문항선별과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상관행렬과 다중상관제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확인하였다. 상관표를 살펴본 결과, 14번 문항인 '리더십이 뛰어나다'와 22번 문항인 '지도력이 있다'가 .703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38번 '끊임없이 노력한다'와 39번 '의지가 강하다'가 .704, 그리고 48번 '정직하다'와 49번의 '겸손하다'가 .784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상관이 높게 나타난 6문항에 대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상관제곱치를 확인한 결과 14번 문항은 .658, 22번 문항은 .641, 38번 문항은 .650, 39번 문항은 .703, 48번 문항은 .767, 49번 문항은 .74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문항들이 서로 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문항들로 보이기 는 하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은 다중상관제곱치는 아니기에 6문항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요인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검사를 살펴보면 9요인 이후에는 평준화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누적 분산비율을 확인한 결과 7요인 이후로는 전체 공통 분산이 85%가 넘어가기 때문에 5요인, 6요인, 7요인을 추출하여 결과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Mplus 7.0을 통해서 공통요인분석을 한 결과 5요인, 6요인, 7요인에 대한 전반적 합치도는 아

표 4. 암묵적 이론 척도의 요인 수 별 고유치

요인 수	고유치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 비율
1	14.337	8.445	0.434	0.434
2	5.891	3.549	0.179	0.613
3	2.343	0.457	0.071	0.684
4	1.885	0.527	0.057	0.741
5	1.358	0.269	0.041	0.782
6	1.089	0.124	0.033	0.815
7	0.966	0.024	0.029	0.844
8	0.942	0.067	0.029	0.873
9	0.875	0.125	0.027	0.899

표 5. 5요인, 6요인, 7요인 모형의 합치도

모형	$\chi^2$	df	$\Delta\chi^2$	$\Delta df$	RMSEA	TLI	CFI
5요인	2917.058	1426			.058	.798	.832
6요인	2645.051	1372	272.007*	54	.054	.821	.856
7요인	2411.418	1319	233.633*	53	.051	.840	.877

주. \* :  $p < .05$  수준에서 유의

표 6. 암묵적 이론 척도 42 문항의 요인구조

번호	문항내용	요인1 자신감 및 내적동기	요인2 개방성 및 독창성	요인3 리더십	요인4 용기 및 추진력	요인5 도덕적 인성	요인6 유머감각 및 매력	7.요인 전문성 및 독립성	공통분
5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랑한다	.580	.023	.029	.286	-.038	.069	-.008	.558
6	자신감이 높다	.534	.056	.098	.265	-.157	-.017	.148	.573
21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다	.464	.141	-.073	.273	.105	-.063	.217	.638
31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57	.02	-.005	.316	.098	.243	-.145	.515
36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089	.841	-.005	.034	.036	.004	-.026	.718
27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	.076	.840	-.026	-.023	.047	-.122	-.066	.728
49	독특한 생각을 가진다	-.153	.743	-.023	0	-.02	.035	.122	.664
17	상상력이 풍부하다	.01	.734	-.041	-.011	.021	-.012	-.023	.566
22	호기심이 많다	.077	.660	-.169	-.066	.049	.04	.102	.595
45	독창적이다	-.106	.647	.025	.11	-.074	-.039	.107	.579
33	새로운 것을 만든다	.006	.644	.005	.103	-.016	-.042	.057	.634
24	도전적이다	.021	.637	.191	.111	0	-.053	-.008	.637
26	개성이 뚜렷하다	.129	.611	.086	-.204	.016	.065	.228	.645
28	관찰력이 뛰어나다	.06	.595	.068	.044	.119	.03	.012	.536
15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169	.476	-.083	.043	-.049	-.025	-.098	.500
41	생각이 개방적이다	.127	.450	.078	.132	-.093	.123	-.133	.532
32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025	.433	.08	.151	-.053	.091	-.027	.524
23	지도력이 있다	-.035	.096	.821	.008	.032	.022	.018	.521
14	리더십이 뛰어나다	.165	.017	.768	-.06	.022	.015	.069	.384
11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220	-.035	.321	.016	.171	.106	.027	.544
40	의지가 강하다	.024	.01	-.001	.828	.117	-.067	-.033	.699
39	끊임없이 노력한다	.125	.027	-.009	.693	.081	-.023	.014	.649
56	추진력이 있다	.014	.097	.144	.555	-.035	.014	.069	.607
5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005	.263	-.127	.460	-.049	.139	.028	.599
53	용감하다	-.029	.087	-.094	.365	.029	.226	.268	.481
48	앞을 내다 볼 수 있다	-.032	0	.108	.352	.017	.262	.115	.482
51	겸손하다	.018	.008	-.007	-.035	.888	-.032	.031	.744
50	정직하다	.077	.04	-.095	.024	.878	-.013	.058	.764
60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한다	-.009	.033	.188	-.049	.587	.259	-.146	.687
29	자신감이 넘치지만 겸손하다	-.003	.130	.214	.031	.550	.016	-.033	.618
42	친절하다	-.077	-.027	.105	.091	.518	.289	.022	.628
38	근검절약한다.	-.218	-.072	.201	.181	.474	.023	.057	.550
46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07	-.135	.301	.241	.343	.143	.011	.646
47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021	.017	-.059	.024	.029	.862	.009	.638
30	이야기꾼이다	-.069	.152	.013	-.034	-.049	.636	.031	.558
61	매력이 넘친다	.236	-.066	.008	-.025	.063	.524	.161	.485
4	쾌활하다	.292	-.003	.133	-.004	.015	.516	-.088	.518
52	자존심이 강하다	.220	-.229	.043	.247	.028	-.021	.557	.520
54	특출한 재능이 있다	-.066	.133	.133	.139	.034	-.025	.510	.556
43	전문성이 뛰어나다	.032	-.013	.071	.191	.123	.062	.489	.525
2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	-.028	.027	-.303	-.025	-.146	.092	.436	.380
34	민감하다	.17	.049	-.033	-.028	-.113	.032	.359	.390

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chi^2$ 값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분석 대상 표본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합치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6요인부터 TLI와 CFI가 .8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며, RMSEA 값은 8요인에 이르러서 .05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7요인이 가장 적절한 해석가능성을 보이기에 7요인 구조의 기초해를 회전시켜 최종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는 이순목(2000)이 제안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인 해석가능성에 따라 분석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따른 것이다.

7요인의 기초해에서 GEOMIN 기준으로 회전시켜 구한 구조에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이 되면 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변수복잡도가 2 이상이며 각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 이하로 나타난 문항들을 우선 순위로 제거하였다. 문항을 제거할 때에는 요인부하량과 함께 다중상관치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제거했으며 59문항에서 17문항을 제거하여 42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

종 합치도 지수는 CFI가 .933, TLI가 .902로 적절한 모델 검증지수를 나타냈으며, RMSEA도 .047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번 문항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와 44번 문항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문항은 다른 요인과 약 .04 정도의 요인 부하량 차이가 나타나 원칙적으로 교차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삭제해야 하나 해석 가능성을 두고 삭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은 이순목(2000)의 제안에 근거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2인이 검토하여 두 문항은 최종 구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42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 1은 4문항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랑한다’, ‘자신감이 높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항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내적동기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에 ‘자신감 및 내적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독특한 생각을 가진다’, ‘생각이 개방적이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독창성과

표 7.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요인 구조 간 상관 (N=313)

	요인1 자신감 및 내적동기	요인2 개방성 및 독창성	요인3 리더십	요인4 용기 및 추진력	요인5 도덕적 인성	요인6 유머감각 및 매력
요인2 개방성 및 독창성	.407*	1				
요인3 리더십	.190*	.037	1			
요인4 용기 및 추진력	.323*	.461*	.246*	1		
요인5 도덕적 인성	.225*	-.03	.428*	.353*	1	
요인6 유머감각 및 매력	.112*	.150*	.368*	.113*	.315*	1
요인7 전문성 및 독립성	.099*	.224*	.221*	.339*	.254*	.170*

주. \* $p < .05$

개방성을 나타내기 위해 ‘개방성 및 독창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의 문항은 ‘지도력이 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리더십’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의지가 강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추진력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용기 및 추진력’이라고 하였다. 요인 5는 ‘겸손하다’, ‘정직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한다’, ‘친절하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대부분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에 ‘도덕적 인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을 구성하는 문항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이야기꾼이다’, ‘매력이 넘친다’, ‘쾌활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유머 감각 및 매력’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자존심이 강하다’, ‘특출한 재능이 있다’, ‘전문성이 뛰어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전문성 및 독립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2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의 Cronbach  $\alpha$ 는 .80, 요인 2는 .91, 요인 3은 .76, 요인 4는 .81, 요인 5는 .89, 요인 6은 .76, 요인 7은 .60으로 나타났다.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독특한 결과로는 요인 2인 ‘개방성 및 독창성’과 요인 3인 ‘리더십’( $r=.037, p.>.05$ ), 요인 5인 ‘도덕적 인성’ 요인( $r=-.03, p.>.05$ )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타당도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창의적 특성 척도와 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특성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창의적 성향 요인과 비창의적 성향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창의적 성향 요인 점수에서 비창의적 성향 요인 점수를 감산하여 나타낸다. 상관표를 살펴보면, 개발된 한국 암묵적 이론 척도의 대부분의 요인과 CPS 창의적 성향요인과 CPS 총점간의 높은 값이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CPS 창의적 성향 요인과

표 8. 암묵적 이론 척도 요인과 창의적 특성 간 상관 (N=313)

	CPS 창의적 성향 요인	CPS 비창의적 성향 요인	CPS 창의적 특성 총점
요인1 자신감 및 내적동기	.239***	.036	.207***
요인2 개방성 및 독창성	.156**	-.156**	.219***
요인3 리더십	.217***	.187**	.127*
요인4 용기 및 추진력	.215***	.053	.178**
요인5 도덕적 인성	.107	.338***	-.047
요인6 유머감각 및 매력	.141*	.010	.129*
요인7 전문성 및 독립성	.232***	-.022	.230***

주. \* $p<.05$ , \*\* $p<.01$ , \*\*\* $p<.001$

자신감 및 내적동기 요인과는  $r=.239(p<.001)$ , 개방성 및 독창성과는  $r=.156(p<.01)$ , 리더십과는  $r=.217(p<.001)$ , 용기 및 추진력과는  $r=.215(p<.001)$ , 유머감각 및 매력과  $r=.141(p<.05)$ , 전문성 및 독립성하고는  $r=.232(p<.001)$ 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 5인 도덕적 인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r=.107, p>.05$ ). CPS 창의적 특성 총점과도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요인 5인 도덕적 인성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자신감 및 내적동기:  $r=.207, p<.001$ , 개방성 및 독창성:  $r=.219, p<.001$ , 리더십:  $r=.127, p<.05$ , 용기 및 추진력:  $r=.178, p<.01$ , 도덕적 인성:  $r=.129, p>.05$ , 유머감각 및 매력:  $r=.129, p<.05$ , 전문성 및 독립성:  $r=.230, p<.001$ ). CPS 비창의적 성향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개방성 및 독창성과 부적 상관( $r=.156, p<.05$ )을 보였으며, 리더십( $r=.187, p<.01$ )과 도덕적 인성요인( $r=.338, p<.0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연령대 별 암묵적 이론 척도 요인 점수 간의 차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요인 점수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ANOVA를 실시하였다. 창의성에 대

한 암묵적 이론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연령대를 통하여 하나의 구조를 도출하였으나, 암묵적 이론의 특성 상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한 연령 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연령대에 따른 창의성 암묵적 이론 요인 기술 통계치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대 별 창의성 암묵적 이론 요인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를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표 10에서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감 및 내적동기( $F=3.79, p<.01$ )와 리더십( $F=5.46, p<.001$ ), 용기 및 추진력( $F=3.24, p<.05$ ), 도덕적 인성( $F=8.0, p<.001$ ), 전문성 및 독립성( $F=5.89, p<.001$ )에서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 별로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감 및 내적동기 요인에서 10대 보다 50대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리더십 요인에서는 10대, 20대 보다 50대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30대보다 50대가 .05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기 및 추진력 요인에서는 10대보다 50대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적 인성요인에서는 10대와 20대 보다 50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표 9. 연령대별 창의성 암묵적 이론 요인 기술 통계량

연령대	N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자신감 및 내적동기		개방성 및 독창성		리더십		용기 및 추진력		도덕적 인성		유머감각 및 매력		전문성 및 독립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0대	79	5.64	1.00	5.85	.95	4.53	1.01	5.05	.94	3.95	.73	4.41	.98	4.44	.81
20대	62	5.85	1.00	6.14	.55	4.42	1.18	5.39	1.06	3.97	1.07	4.68	1.14	4.62	1.13
30대	54	5.99	.60	5.89	.75	4.56	.98	5.48	.70	4.31	1.01	4.53	.94	4.81	.89
40대	65	5.93	.75	5.93	.68	4.74	1.18	5.28	.76	4.26	.99	4.39	1.08	5.11	.83
50대 이상	53	6.19	.58	6.01	.66	5.27	1.06	5.54	.92	4.83	1.05	4.55	1.10	4.93	.81
합계	313	5.90	.84	5.96	.75	4.68	1.11	5.32	.90	4.23	1.01	4.50	1.05	4.76	.92

표 10. 연령대 별 창의성 암묵적 이론 요인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암묵적 이론 요인	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ost Hoc (Scheffe)
요인1 자신감 및 내적동기	10.41	4	2.60	3.79**	10대<50대**
요인2 개방성 및 독창성	3.44	4	.86	1.55	-
요인3 리더십	25.63	4	6.40	5.46***	10대, 20대<50대** 30대<50대*
요인4 용기 및 추진력	10.26	4	2.56	3.24*	10대<50대*
요인5 도덕적 인성	29.71	4	7.43	8.0***	10대, 20대<50대*** 40대<50대*
요인6 유머감각 및 매력	3.73	4	.93	.85	-
요인7 전문성 및 독립성	18.97	4	4.74	5.89***	10대<40대** 10대<50대*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났다( $p < .01$ ). 그리고 40대보다 5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 요인에서는 10대보다 40대( $p < .01$ ), 50대( $p < .05$ )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구조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7개의 요인 점수가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요인은 총 7개의 요인이었으며, 각각의 요인을 ‘자신감 및 내적동기’, ‘개방성 및 독창성’, ‘리더십’, ‘용기 및 추진력’, ‘도덕적 인성’, ‘유머감각 및 매력’, ‘전문성 및 독립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

인들은 Lim과 Plucker(2001)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창의성 암묵적 이론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네 가지 요인인 ‘성격과 일반적 창의성’, ‘인내’, ‘독립성과 이상성’, ‘인지와 동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새롭게 나타난 요인들로는 ‘리더십’ 요인과 ‘유머감각 및 매력’, 그리고 ‘전문성 및 독립성’ 요인들이 기존의 연구와는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1985)가 제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암묵적 이론이란 조사되는 시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에 Lim과 Plucker(2001)의 연구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Csikszentmihalyi(1998)가 제시한 체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창의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성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요소로 선정되고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 지는데, 창의적 성취의 기준과 영역이 지속적인

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Lim과 Plucker(2001)의 암묵적 이론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으며, 정상적이지 않고 예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Lim과 Plucker는 이러한 특성들을 ‘독립성과 이상성(independence & deviance)’이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 및 독립성’이라고 명명한 7요인의 경우도 ‘자존심이 강하다’와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견 독단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년 전의 Lim과 Plucker(2001)의 연구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폭적으로 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부정적인 지각조차도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피력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기에 반사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특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 10년 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인이 가진 창의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결과는 창의적인 인물은 높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5요인으로 나타난 ‘도덕적 인성’요인은 겸손함과 정직,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사회적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기이한 행동을 한다와 같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였다(최인수, 2011).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들도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Csikszentmihalyi, 1996). 물론 창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

다. 2008년도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가, 혁신기업인 토요타의 책임불감증으로 인한 리콜사태, 뛰어난 인재들의 집단을 이끌었던 황모 박사의 데이터 조작과 같이 창의성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 잘 못 사용되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적인 인물의 사회적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창의적 인물들이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특성검사(CPS)에서 창의적인 인물은 ‘이기적’, ‘속물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속성이 창의적인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속물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적 요인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공교육의 기초를 창의·인성 교육으로 정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더불어 인성적인 측면을 같이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문용린, 최인수, 2010). 또한 창의성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도 창의성의 어두운 면을 경계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Cropley, Kaufman, & Cropley, 2008; Sternberg, 2003).

‘리더십’과 ‘유머감각 및 매력’의 경우 한국 사람들의 창의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 사회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이 기존의 지도력과 추진력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같이 겸비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창의성과 리더십의 접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표정민, 최인수, 2009; Puccio, Murdock, & Mance, 2006), 두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연구되어질 주제라

고 생각된다. ‘유머감각 및 매력’ 요인의 경우는 기존의 동양 문화권에서 암묵적 이론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유머감각’이나 ‘매력’등이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보인다. 미국이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창의적인 특성으로 유머감각이 많이 나타났으나 동양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Rudowicz, 2003). 하지만 점차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요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로 주목할 만 한 점은 ‘개방성 및 독창성’ 요인이 ‘리더십’과 ‘도덕적 인상’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창의적인 사람을 인식할 때, 독창적이고 개방적인 사람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인성적으로 좋은 사람의 특성들은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의 특성들이 창의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특성이고 사람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암묵적 이론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CPS의 창의적 성향 요인과 CPS 창의적 특성 총점은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지만 ‘도덕적 인상’은 창의적 성향 요인과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비창의적 성향 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CPS의 개별 문항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함으로써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다. CPS 척도는 1983년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기에 인성적 측면과 관련된 특성들이 비창의적 성향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CPS 척도는 한국에서도 창의적인 성향을 측정하고 수렴타당도를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기는 하나, 개발 시

가 오래되었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CPS의 문제점은 최근 들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최인수, 윤지윤, 2013).

마지막으로 7요인으로 구성된 한국적 창의성 암묵 척도를 이용하여 연령 별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방성 및 독창성’과 ‘유머감각 및 매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대부분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한 리더십과 책임감과 같은 측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김성환(2012)의 연구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성환(2012)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창의적인 인물을 정치인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리더십과 책임감적인 측면은 정치가가 가져야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Yue와 Rudowicz(200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창의적인 사람을 대부분 정치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리더십과 인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창의적인 인물을 김성환(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정치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져야할 특성으로 리더십과 인성적 측면을 강조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과 암묵적 이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중 하나인, 하나의 공통된 문화권 안에서도 하위문화가 존재하며 그 하위문화권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즉, 한국이라는 공통된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은 창의성



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시기와 그 차이에 따라 창의성의 암묵적 이론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동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 간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암묵적 이론 연구가 주로 국가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암묵적 이론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Sternberg(1985)의 제안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도출했지만, 확인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요인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 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한국 내의 여러 하위문화 별(기업, 학교, 지역, 등등)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러한 각 집단에서 창의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대부분의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볼 때, 반응경향성과 같이 체계적인 영향을 주는 오차변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하여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령별 인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각 연령대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인원 수임을 감안하여 해석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Sternberg(1985)의 연구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암묵적 이론의 연구방법이 주로 개방형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수준에서 이루어져왔고, 또한 단순한 문화 비교 차원에서 만 다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암묵적 이론 연구 방법을 더 발전시켜 척도를 개발한 후 그 요인구조를 파악함

과 동시에 세대별로 그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추후 한국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하여 논할 때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보다 확대해 본다면 한국 내에 존재하는 하위문화와 창의성 평가의 기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의 틀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또한 문화구성적 창의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의 하나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명철, 민경환 (2012). 창조성의 사회심리학적 연구: 개념, 방법, 흐름과 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51-72.

김민희 (2010). 지혜 암묵이론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75-997.

김성환 (2012).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지역과 세대별 인식차이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록, 이순목 (2004). 한국판 창의적 산물 평가 도구의 개발 및 구조 확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3), 305-327.

문용린, 최인수 (2010). 창의 · 인성교육의 총론.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심포지움, 10, 21-29.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365-391.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이신동 (2003). 창의성 검사의 문제점과 과제. 영대와 영재교육, 2, 제 2주제 발표.

장인희 (2011). 한국 초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아동의 창의성에 관한 암묵적 지식 연구: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조사 분석을 통한 창의성 개념 생성. 교육문제연구, 40, 141-167.

최인수 (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25-47.

-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쌤앤파커스. (pp.395-4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한국·중국·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 -복합성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1(2), 27-48.
- 최인수, 윤지윤 (2013).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 연구: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과 지각된 창의적 성향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3(2), 159-183.
- 최인수, 이건희, 표정민 (2013). 창의적 인물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 비교. *영재교육연구*, 23(4), 615-632.
- 최인수, 전요한, 표정민 (2013).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연구: ACL-CPS를 사용하여. *아시아교육연구*, 14(3), 319-344.
- 최지은, 송인섭 (2002). 창의성의 체제모델에서 분야와 영역 간의 양방향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173-199.
- 표정민, 최인수 (2009). 아동 리더십에 관한 교사와 아동의 암묵적 지식과 양측이 리더로 지각한 아동들의 창의적 리더 유형 차이, *아동학회지*, 30(6), 443-458.
- 하주현, 성은현, 한순미 (2008). 창의적 인성 체 크리스트 개발 및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2(1), 169-191.
- 한순미, 성은현, 이정규 (2008). 창의적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한 한, 미 대학생의 암묵적 개념과 현실 환경. *교육심리연구*, 22(1), 151-168.
- Cheng, S. K. (1999). East-West differences in views on creativity: is Howard Gardner correct? Yes, and no. *Journal of Creative Journal*, 33(2), 112-123.
- Choe, I. S. (2006). Creativity - A sudden rising star in Korea.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ivity* (pp.395-4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pley, D. H., Kaufman, J. & Cropley, A. J. (2008). *The dark side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person: A system view of creativity. In R.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pp.325-33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3-33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nca, M. (1999). Creative Children in Romanian society. *Childhood Education*, 75(6), 355-358.
- Domino, G. (1970). Identification of potentially creative persons from the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48-51.
- Eysenck, H. (1993). Creativity and Personality: An Attempt to bridge divergent traditions. *Psychological Inquiry*, 4, 238-246.
- Fryer, M. & Collings, J. A. (1991). British teacher views of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5, 75-81.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House.
- Gough, H. G. (1979). A creative personality scale for the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8), 1398-1405.
- Gough, H. G., &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Hui, A. & Rudowicz, E. (1997). Creative personality versus Chinese personality: how distinctive are these two personality factors? *Psychologia*, *XL*(4), 277-285.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 in adult competence. In J. A. Meacham(Ed.),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Vol.17, pp1-96). Basel: Karger.
- Kaufman, J. C. (2009). *Creativity 10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Lim, W., & Plucker, J. (2001). Creativity through a lens of social responsibility: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with Korean sample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5*, 115-130
- Lubart, T. I. (1999). Creativity across culture. R. J.(ed.). *Handbook of creativity* (pp.339-3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bart, T. I. (2010).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pp.265-27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S. M. (2010). A review of CEFA software: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0*, 95-103.
- McDonald, R. P. (2005). Semi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xample of anxiety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63-172.
- Neisser, U. (1979).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 D. K. Detterman (Eds.), *Human intelligence: Perspectives on its theory and measurement* (pp. 179-189). Norwood, NJ: Ablex.
- Niu, W. & Sternberg, R. J. (2002). Contemporary studies on the concept of creativity: The East and the Wes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4), 269-288.
- Plucker, J., Beghetto, R. A., & Dow, G. (2004). Why isn't creativity more important to educational psychologists? Potential, pitfalls, and future directions in creativity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9*, 83-96.
- Puccio, G. J., Murdock, M. C., & Mance, M. (2006). *Creative leadership: Skills that driving change*. Thousand Oaks, CA: Sage.
- Romo, M., & Alfonso, V. (2003). Implicit theories of Spanish painter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 409-415.
- Rudowicz, E. (2003). Creativity and culture: a two way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273-290.
- Runco, M. A. (1990). Implicit theories and ideational creativity. In M. A. Runco & R. S. Albert (Eds.) *Theories of Creativity*. Newbury, CA: Sage.
- Rush, M. C., Thomas, J. C., & Lord, R. G. (1977). Implicit leadership theory: a potential threat to the internal validity of leader behavior questionnair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0*, 93-110.
- Saarilahti, M., Cramond, B. & Sieppi, H. (1999). is creative nurtured in Finnish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5*(6), 326-331.
- Schaefer, C. E. (1973). Follow-up study of the self-concept of creative adolesc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3*, 163-170.
- Schneider, D. 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 Simonton, D. K. (2009). Varieties of creativity: A hierarchical model of disposition, development, and achieve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 441-452.
- Singh, R. P. (1987). Parental perception about creative children. *The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12*(1), 39-42.
- Sternberg, R. J. (1983). Components of human

- intelligence. *Cognition*, 15, 1-48.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 Sternberg, R. J. (2003). *Wisdom, intelligence, and creativity synthesiz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Torrance, E. P. (1974).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Welchsler, S. M. & Martinez, A. M. (2001). Creativity in Latin America: a cross-cultural perspective from Brazil and Cuba. In M. I. Stein, (Ed.) *Creativity's Global Correspondents-2001*. Delray Beach, FL: Winslow Press.
- Yates, A. (1987). *Multivariate exploratory data analysis: A perspective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Yue, X. D. & Rudowicz, E. (2002). The most creative Chinese minds a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2), 88-104.
- Yue, X. D., Nemder, M., & Cheung, C. (2011). Who are the best-known national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s*, 45(1), 23-37.

1 차원고집수 : 2014. 01. 12.

수정원고집수 : 2014. 02. 16.

최종게재결정 : 2014. 02. 16.

## A Study for Developing Creativity Test based on Implicit Theories of Korean People

In-soo, Choe

Jungmin, Pyo

Sungkyunkwan Univ.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creativity test based on implicit theories of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factor structure developed was used to examine differences by age group. For this purpose, The 313 participan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from 10 to over 50 years old and descriptiv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used by SAS 9.1, PASW 18.0 and MPLUS 7.0. As result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identified seven factors, namely motivation, originality, leadership, endeavor, personality, attraction, professionalism. Cronbach's  $\alpha$  figures was .60 ~ .91, reliability was good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with Gough and Heilbrun's creative personality scale(CPS) was acceptable. To confirm the seven factor score by age group, ANOVA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was that motivation, leadership, endeavour, personality, professionalism have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t ages greater than younger. This study developed the creativity test based on implicit theories of Korean people to the study and confirmed differences about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by age that Sternberg(1985) has been proposed.

*Key words : Creativity, Implicit Theories*